



“마음이 바뀌었어요”

보험 가입 한달내 청약철회 100건중 5건

지난해 생보사 59만건·손보사 51만건

홈쇼핑 14%...비대면 판매 철회율 높아

에이스 보험 10% 상회...농협손보·생보 최저

보험에 들고서 한 달 내에 계약을 무리는 청약 철회 비율이 100건 가운데 5건 꼴로 나타났다. 판매채널별로는 홈쇼핑과 텔레마케팅 쪽 철회율이 14% 수준이고, 철회율이 가장 낮은 곳은 농협손해보험과 농협생명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21일자로 공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신(新)계약 953만1000건 가운데 철회된 계약은 59만1000건, 손해보험사에서는 1094만4000건 중 51만6000건으로 철회 비율이 각각 6.20%, 4.71%였다.

생보사의 철회율이 더 높은 것은 계약기간이 길고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품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청약철회란 보험에 든 고객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청약일로부터는 30일 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가 받아들이고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한 소비자보호 제도다. 그러나 건강검진이 필요한 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철회 사유는 별도로 없다.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보험을 유지할 형편이 안 된다고 판단해 무리는 등 변심이 주된 이유라는 업계의 설명이다.

설계사,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방카·텔레마케팅·홈쇼핑·기타), 직영(복합·다이렉트) 등 8가지 판매채널로 나뉜 업계의 평균 철회율은 천차만별이다.

홈쇼핑이 생보(14.26%)와 손보(13.78%) 모두 14% 안팎으로 가장 높고 텔레마케팅(생보 13.89%, 손보 13.30%)과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다이렉트(11.45%, 9.64%)가 뒤를 이었다. 이들 세 가지는 대표적인 비대면 판매방법에 속한다.

반면에 철회율이 낮은 채널은 대부분 대면 영업이다. 생보에서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하는 방카(3.66%), 개인대리점(3.77%), 설계사(4.50%)의 철회율이 낮은 편이다.

손보에선 개인대리점(2.14%), 대면 및 비대면 모집을 병행하는 보험사 직영조직인 복합(2.17%), 설계사(2.50%) 쪽의 철회율이 낮다. 홍정희 금융감독원 보험업무팀장은 “친분으로 청약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은 대면채널과 달리 비대면채널은 철회에 대한 부담이 적은 데다가 상품정보를 취득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철회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보험사별 철회율에도 반영된다. 비대면 영업 비중이 크면 철회율도 높은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손보와 생보에서 철회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각각 1.35%, 2.65%를 기록한 농협손보와 농협생명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면 판매 비중이 99%가 넘는다는 점이다. 농협손보는 방카·설계사를 통해, 농협생보는 방카·



기타법인대리점·설계사 채널로 대부분의 영입이 이뤄진다.

그밖에 철회율이 낮은 곳은 손보에서는 한화손보(2.73%), 삼성화재(2.92%), LG손보(3.62%), 메리츠화재(3.68%)가 꼽혔다. 생보에선 미래에셋생명(4.48%), 푸르덴셜생명(4.58%), 신한생명(4.67%), 삼성생명(4.69%)이 낮은 편이었다.

철회율이 10%를 웃돈 곳으로는 손보에서 에이스보험(15.08%)과 AIG손보(12.38%)가 이름을 올렸다. 생보에선 현대라이프(13.07%), BNP파리바카디프생보(11.60%), 라이나생명(11.19%), AIA생명(10.99%), 동양생명(10.85%), 하나생명(10.07%)이 포함됐다. 에이스보험은 다이렉트, 홈쇼핑, 텔레마케팅 등 세 가지 비대면 영업으로 지난해 보험상품의 100%를 팔았다. /연합뉴스

콘도회원권, 방문·전화판매 조심

계약해지 등 소비자원 피해 상담 7만333건...전월보다 28% 늘어

‘콘도회원권’, ‘상조회’, ‘운동화’, ‘차량용 블랙박스’ 등 관련 상담의 증가율이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7만332건으로 전월(5만 5173건) 대비 27.5%가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은 품목은 ‘휴대폰·스마트폰’으로 2378건이었지만 증감률은 14.1%에 불과했다. 반면 ‘콘도회원권’ 관련 상담은 714건으로 전월(398건) 대비 79.4%나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549건)에 비해서도 30.1% 증가했다.

상담내용을 보면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및 ‘청약철회’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의 67.9%(485건)를 차지했고 방문판매 또는전화권 유관매(무료회원권 당첨상술 등)로 계약한 회원권의 청약철회 거부, 계약해제·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 환급지연 및 거부 관련 상담이 많았다.

상조회 관련 상담도 2060건으로 전월 대비

76.8%, 전년 동월(1420건) 대비 45.1% 증가했다. 상담내용으로는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 문의 및 상조업체 경영악화로 인한 해지환급금 지급 지연·미지급 관련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화’ 관련 상담(602건)도 전월(354건) 대비 70.1%나 증가했으며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운동화의 배송 및 환급지연, 정·가품 여부, 품질 불만족 등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이 전체의 51.5%(310건)를 차지했다.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상담(422건)은 전월(277건) 대비 52.3%(145건), 전년 동월(313건) 대비 34.8%(109건) 증가했고 ‘A/S 및 품질 불만’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의 46.9%(198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사업자와의 분쟁은 소비자단체 및 지자체의 피해처리(7271건)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분쟁조정(2696건)을 통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갑질’ 대기업에 과징금

공정위, 광고대행사 7곳 불공정 하도급 시정명령

대기업 계열 광고회사들이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갑의 횡포’를 벌이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업종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 행태를 처음으로 직권 조사한 결과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7개 광고대행사에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그룹 계열인 제일기획의 과징금이 12억1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그룹 이노션(6억4500만원), 롯데그룹 대흥기획(6억1700만원), SK그룹 SK플래닛(5억9900만원), 한화그룹 한림(2억3700만원), LG그룹 H&A(2500만원), 두산그룹 오리콤(4000만원) 순이다.

조사 결과 대기업 광고대행사들은 계약서 교부, 대금 지급 등 하도급법상 원정 사업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광고대행사들은 광고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줘야 하지만 제작 중간이나 심지어 제작이 끝난 지 1년 이상 지나고서 계약서를 주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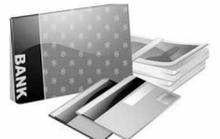
A업체는 제일기획의 발주를 받아 일을 마쳤지만 돈은 1년 4개월가량 지난 후에 받을 수 있었다.

이노션의 발주를 받은 B업체는 세트제작비·인건비 등으로 얼마가 들어간다는 견적을 내고 광고를 만들었다가 제작이 끝난 후 견적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다시 썼다. 일종의 ‘단가 후려치기’ 사례다.

김홍조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사가 원정업체의 기본적인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광고업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포통장’ 신고하면

최고 50만원 포상금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결과 금융사기범 적발 기여도에 따라 우수제보는 50만원, 일반은 30만원, 단순 참고건은 10만원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날부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대포통장 신고 전용 사이트를 구축했다.

대포통장 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 분원이나 지원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2-3145-8539)로 제출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0억 원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담보 비율 : 최대 70%
나대지 원룸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 대상**
1.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7. (초회 공제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8.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계좌 변경 고객 - 1장

행사가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찰입회 후 추첨 예정)

- 경품안내**
-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 3등 - 아이패드(3명)
 - * 4등 - 족욕기(10명)
 -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의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